

“친인척 채용, 정부가 감독해야”

김해영 “사립학교 262곳, 이사장 친인척 305명 채용”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24일 교육 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 자료를 파악한 결과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교원 제외)이 1명 이상 재



김해영 의원은 지난 24일 교육 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 자료를 파악한 결과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교원 제외)이 1명 이상 재

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262곳이었고 친인척 직원 수는 모두 30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6곳에 44명의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어 가장 많은 직원 숫자를 기록했다. 뒤이어 ▲전북 30곳 41명 ▲경북 34곳 38명 ▲부산 32곳 37명 ▲서울 23곳 31명 ▲경남 22곳 24명 ▲대구 20곳 20명 순이었다.

전국 238개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경기 은혜학원과 진선학원, 전북 로템나무학원과 춘봉학원, 부산 동래학원, 경남 경일학원, 충남 흥립학원이 각각 4명씩 고용하고 있었다. 경기 진성학원, 경북 공산교육재단과 동산교육재단, 부산 구암학원, 서울 송산학원, 충남 금성학원에는 각각 3명의 친인척이 재직 중이었다. 나머지 225개 법인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사장과의 관계는 ▲조카 등 3촌 지간이 104명(34%)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및 배우자 등 1촌 지간 친인척

이 97명(32%) ▲4촌 지간 이상이 52명(17%) ▲형제 및 손자 등 2촌 지간이 45명(15%) ▲배우자 7명(2%) 순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의 임금과 사학연금이 지급되는 만큼, 정부와 교육청이 사학의 인사권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전주대-분당서울대병원, 중증 장애 아동 대상 통합진료 서비스

전북도가 지원하고 전주대(총장 이호인)가 위탁 운영하는 전북도보조기기센터(이하 전북보조기기센터)는 오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분당서울대병원과 함께 중증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찾아가는 경직 클리닉'을 운영한다. 전북도장애인복지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해 진행하는 '2018년 찾아가는 경직클리닉'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이 진료하

고 전북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경제를 실현한다. 진료는 9월 6일 전북도장애인복지관, 9월 7일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되며, 만 18세 미만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 아동(보호자)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평소 중증 장애 아동은 여러 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료뿐만 아니라 이동과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이번 통합진료로 한 곳에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다수의 전문의에게 원스톱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 이후에는 보조기기 관련 상담과 평가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북보조기기센터와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번 진료 결과와 소득분위를 고려하여 필요한 수술과 보조기기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보조기기센터 신현욱 센터장(전

주대 재활학과)은 “찾아가는 경직클리닉을 통해 전라북도의 장애 아동들이 편리하게 필요한 진료를 받고 보조기기 서비스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진료 신청은 전북보조기기센터와 전북도·군산장애인복지관에 우선 및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전북도보조기기센터(063-220-3003)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도교육청, 전문직원 임명장 수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강당에서 2018년 9월 1일자 교장·원장·교감·교감·원감 및 교육전문직원 발령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도교육청 교육국장, 학생해양수련원장, 고창교육장, 인성건강과장을 비롯하여 교장 전직 13명, 교감·원장 승진 29명, 공모교장 3명, 장학관 승진 7명,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 7명, 교감 전직 10명, 교감·원감 승진 27명, 장학사·교육연구사 신규 임용 24명 등 총 124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발령자들에게 청렴한 교육행정을 바탕으로 자율과 도전을 통해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으로 가르치는 것이 행복한 선생님, 소통과 협력으로 학교가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차별이 없는 교육 실천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 신뢰와 존중의 교육현장으로서의 전북, 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을 이끌어 가야함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차별화된 대학으로 자리매김 할 것”

호원대, 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한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26일 밝혔다. 호원대는 지난 6월 발표된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에서 우수 대학 평가를 받아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에 이어 금번 최종 발표에서도 변동없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호원대학교는 자율적인 정원운용과 더불어, 향후 3년간(2019~2021년)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동시에 각종 특수목적 지원사업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및 재학 자금 대출도 지원받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조성 및 학업 성취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대체하는 평가로,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인 △발전 계획 및 성과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의 항목을 평가했으며 호원대는 각 지표별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다. 호원대 강희성 총장은 “앞으로도 그 동안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교과 및 비교과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장학금 확충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 시설 개선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며, 향후 정부에서 지원받는 재정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혁신에 투자해 차별화된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호원대 2019학년도 수시모집은 9월 10일~14일까지 전체 모집인원 1188명의 73.5%인 873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2019학년도에는 K-POP학과와 국방무기체계학과, 항공정비공학과 등 3개 학과가 신설되어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서 신입생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호원대학교는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대학으로 6회를 모두 지원했어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며, 수시원서는 온라인접수, 방문접수, 우편발송접수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호원대학교 홈페이지 입학문의 또는 호원대학교 입학관리실 상담전화(063-450-7031~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대, '꿈을 만나다' 진로·진학 박람회 성료

지난 25일 전주대 스타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전주대학교 진로·진학 박람회가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 4,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2018년 전주대학교 진로·진학박람회'는 다양한 상담관 및 체험관을 운영하여 진로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적성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전형 체계의 기회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테마별로 총 6개 관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입시상담관과 전형체험관에서는 입시 전문가가 1:1 맞춤형 상담과 모의면접 및 자기소개 작성법 등과 같은 전형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했다. 진로탐색관에서는 MBTI 유형별 상담, 직업카드 검사, 홀랜드 직업흥미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도왔다. 특히 인기가 많았던 것은 학과체험관과 학과상담관이었다. 자작자동차 체험, 사물인터넷체험, VR콘텐츠 체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와 익산학연구소가 지역을 매개로 한 학술·연구와 성과 공유 및 확산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와 익산학연구소, 업무협약 체결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소장 유권홍)와 익산학연구소(소장 임승배)가 '지역이 익산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제화 및 지역화의 접점과 융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두 연구소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5개국이 참가하는 국제학술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 관심 분야의 이슈와 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협업과 공동 노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평화를 정착시키고, 더불어 잘사는 평화 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